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일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 전공

김 환 히

# 일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 전공

김 환 히

# 인 준 서

김환희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형성배경과 표현방법을 연구, 분석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일상에서 경험한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술가는 평범한 대상들에게 정신성을 부여하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의 교감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와 형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기존의 것들에 대해 쉽게 지루함과 권태감을 느끼고 시간에 쫓기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이라는 단어의 인식은 의미 없는 사건들의 반복이다. 하지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일상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을 때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생각되고 느껴졌던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한 일상에서 평범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여러 심리적 감정 상태에 대해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마음으로 느낀 심리적 감정 상태를 조형화하는 것으로 주제에 접근하였으며 누구나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대상들에 대한 인간의 잠재적 본질에 대한 감정, 기억과 생각을 형상화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억과 감정에 대해 본인의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일상으로부터 비롯된 감정들에 접근하면서 작업을 이루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설명

하고 조형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형특성을 제시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으로 작품 제작 동기에 관한 서술을 통해 일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작품 속 공간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고 작품 분석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들의 제작 방법과 작품 설명을 함으로 본인의 작품세계를 돌이켜보았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2
1. 작품형성배경 .....	2
1) 일상성의 의미 .....	2
2) 재해석된 공간 .....	4
3) 기억과 공간 .....	6
2. 작품의 표현방법 .....	7
1) 타이어의 은유 .....	7
2)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통한 공간 형성의 메타포 .....	8
3. 작품 분석 .....	10
III. 결 론 .....	2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pricelessⅢ, 800x800x23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10
【작품 2】 pricelessVI, 600x300x650(mm), 타이어, 와이어, 턴볼트 2015 .....	12
【작품 3】 pricelessIV, 1100x250x75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15
【작품 4】 pricelessV, 700x250x7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17
【작품 5】 pricelessVII, 1200x350x10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19
【작품 6】 pricelessⅡ, 600x300x65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21

# I. 서론

일상은 개개인에게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속시켜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서로 다른 개성들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며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또는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며 우리는 일상적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애매한 감정들과 또 그 속에 고스란히 남겨진 기억이미지들을 경험하게 된다. 예술이 삶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술 활동은 일상 속의 삶에서 미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이며 인간 감정의 표현이다. 예술창조에 관한 이상주의 학설에 따르면, 작가는 자기작품의 모든 결정적 전제조건을 스스로 안에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작가 본인의 경험과 감정으로 평범한 대상 속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역사와 시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 한다.

슈만(Schumann)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불을 비춰 주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임무라고 했다. 또 “화가는 모든 것을 그리고 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톨스토이(Tolstoy)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이러한 특권으로 작품을 창출해 내며 인간의 대리자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에서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작업이며, 직접 본인의 작품에 은유를 통해 표현 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해 표현된 내재심리의 의미와 작업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 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일상성의 의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은 자신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발전 되어왔다.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 스스로 발전됨에 따라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자아’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인들의 자기애적(自己愛的) 자의식이 점차 커지면서, 현대사회로부터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일상이라는 반복적인 생활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타인의 두려운 시선과 현대사회에 동떨어지는 불안감에 따라 일상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 드러났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쇼핑을 통해 욕망을 채워가기도 하며 명예나 부를 통하여 사회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집중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진정한 삶이랑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늘 되풀이되고 반복적인 것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철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인 개념으로 분석되어졌다.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페터 투른(H.P.Thurn)에 의하면,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 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매일 '반복적인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써 관례화 된 것, 안정화 된 것, 습관을 함께 의미한다.<sup>1)</sup>

1970년대 말 독일에서 이루어진 일상(Alltagsgeschichte)연구는 사람의 생활조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사람의 행동, 인식, 관습을 다루었다. 인간의 삶의 관습과 행동양태 등 삶의 자체를 연구하였으며, 그것이 사회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노베르트 엘리아스(N.Elias)는 일상을 비일상과 대립하는 것으로 축일과 반대인 개념 즉, 평일로 제시하였다. 특별하고 비통상적인 사회영역과 반대인 노동자의 작업과 민중의 생활영역,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반대인 매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성찰되지 않은 참된 체험과 사유의 영역, 숙고되지 않은 잘못된 체험과 사유의 총괄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일상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일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상생활, 일상생활세계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sup>2)</sup>

본인 작품에서의 일상은 대도시의 복잡함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느꼈던 감정을 나타낸다. 도심의 정체구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멈춰버린 시간처럼 생각에 잠겨 출발하지 못한 적도 있다. 운전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멍하니 굴러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보며 복잡한 도심 속에서 본인이 현재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곤 하였다. 일상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보며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타이어에 빗대어 본인 또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

1) 신민재,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미친 팝아트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2006, p5

2) 강수택, 일상생활의 페러다임, 믿음사, 1998, p33

## 2) 재해석된 공간

우리는 공간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정된 명칭으로 인지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공간 속에 존재한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 각자의 방이 있고 그 방에도 장롱 속 좁은 공간, 수납공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질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 움직이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자동차가 건너가는 큰 다리 밑 공터, 강 옆으로 만들어진 주민들의 문화체육 시설들이 즐비한 공간, 학교의 운동장, 교실이나 도서관의 로비, 도서관의 책 한권이 빠진 사이의 공간 등 굳이 따지자면 우리 바로 옆에서부터 가보지 않은 장소까지 공간이 포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일상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의 문제가 과거에는 인간 현존재의 시간적 구성들 문제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 1930년대 초,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에서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시간 연구와 긴밀히 연관 지어 이 문제를 수용했으며, 특히 하이데거<sup>3)</sup>의 철학에 자극받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공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계속되었으나 인간의 가장 내밀한 중심과 관련되는 시간과 달리 공간은 인간의 외적 생활환경만을 구성한다고 여겨졌다. 한편, 카시러<sup>4)</sup>는 <상징의 철학>이라는 대작으로 주술적이고 신화적인 기원에서 출발해 근대의 과학적 의식으로 완성되기까

---

3)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실존주의 철학자로 주요 저서는 《존재와 시간》이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 부분에서 불안, 무(無), 죽음, 양심등 실존에 관계되는 여러 양태가 매우 조직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술하여 실존사상의 대표자로 간주되었다. 현존재와 실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많은 이들에게 연구의 자극과 토대가 되었다.

4) 카시러 (Ernst Cassirer, 1874~1945)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을 단순히 합리적 지식에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더욱 넓게 인간의 정신적인 경험이자 문화적 생산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문화의 비판'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하려 했다.

지 인간 사고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며 필연적으로 공간관과 시간관의 발전도 연구했다. 인간 정신의 발전에서 볼 때 신화적 공간은 현대의 과학적 공간 개념에 의해 극복된 과거의 상태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 주제가 지향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망명을 떠남으로써 그의 책은 독일에서 거의 잊혀져 훗날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 그의 이론을 계승해 연구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의 연구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근래에야 체험공간의 문제는 다시 연구의 전면에 등장했다. <상황>이라는 영감과 다른 한편에서는 가스통 바슐라르<sup>5)</sup>가 <4원소>에 관한 독창적인 비중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성의 문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sup>6)</sup>

공간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아무 것도 없는 빈 곳. 둘째,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셋째,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이다. 위에 나열한 사전적 의미는 공간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특정 범위를 충분히 포함하고도 더 포괄적인 장소나 심리적 범위까지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광범위한 의미는 공간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장소나 물리적인 범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공존하는 관계임을 말한다.

본인 작품에서의 공간은 이동 중에 마주하는 많은 공간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비유를 통해 표현 하였다. 그 공간은 힘들거나 지쳤을 때의 감정과 본인이 일상에서 겪었던 상황이나 일 들을 이입하고, 공간 하나하나가 다른 형태를 이루며 만들어지고 작은 공간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큰 공간은 현

5) 가스통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 1884~1962), 프랑스 철학자. 구조주의(構造主義)와 시론(詩論)과 이미지론(論)으로 유명하며, 관련된 대표작으로는 『공간의 시학』이라는 책이 있다.

6)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Otto Friedrich Bollnow),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리브로, 2011, 12-14쪽

재의 본인을 의미 한다.

### 3) 기억과 공간

공간을 존재이자 물상, 기점으로 서로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했다면 그로 인한 기억과 개인이 가지는 그 장소의 특정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작가의 개인의 삶에 따라서 각자의 자아와 상상력이 독자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시적 교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작가의 시를 읽는 독자가 공감할 때에 살아가는 환경이나 지식의 차이를 포함해 상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보편적인 감성이 있는 것이다. 그 상상력의 보편성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한계 없이 자유롭다.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세상 속 공간에서 존재하며 보편성을 가지고, 공간도 존재를 서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누구하나 공간으로부터 벗어 나있지 않고 공간과 함께하고 있다. 공간에 대해 인지하거나, 혹은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누구하나 빠짐없이 공간 자체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우주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가늠조차 어려운 크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잠깐의 시간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세상이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고 벽을 만들며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또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 살고 있다.

공간은 물상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나뉘고 그것을 존재자가 마주하며 형태에서 의미나 서로 존재의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 공간에 어떤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가 있고 낯선, 혹은 꺼리는 장소가 있다. 그것은 각각의 공간과 그 장소에서 누구나 가지

고 있는 기억과 심리적 모습,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공간은 적어도 그 시간, 각자에게는 독립적이다. 그리고 체류하면서 그 공간은 각자의 의미와 감정으로 채워진다.<sup>7)</sup> 인상의 깊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장소에서의 기억이나 추억을 떠올리면 주관적인 형태로 변형된 각자의 공간이 존재한다. 그 기억은 사람에 따라 흐려지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지나다니던 익숙한 길도 낯선 느낌으로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만큼 공간은 물질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기억과 감정은 개인의 체험과 관찰에 따라 다르면서도 일정한 보편성을 가진다.

공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곁에 존재한다. 본인은 일상에서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시각으로 들어오는 공간에서의 기억 속에 감정들을 본인만의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기억을 통해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다른 감정을 작은 공간 하나하나에 이입하고 당시의 힘들고 지친 감정이나 고난과 역경을 본인만의 공간에 빚대어 표현하였다. 공간은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고 본인 역시 그 기억을 가지고 실제 공간에 존재한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 1) 타이어의 은유

타이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바퀴 굴통에 끼우는 테. 주로 고무로 만들며 안쪽에 압축 공기를 채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흡수한다.

---

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리브로, 2011, 87쪽

본인 작품에서 타이어는 일상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버려지는 타이어를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본인과 함께 일상 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본인의 다사다난한 삶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페타이어 공장에서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높게 쌓여 있는 형태를 보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복잡함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방치 되어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였다.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탑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를 통해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표현 하였다.

요철구간 통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의 형태를 되찾는 타이어를 보고 생명성이 없는 물건도 힘들거나 지친 모습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본인 또한 그렇다 아무리 힘들거나 일상에서 일어난 고난과 역경을 내색하기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힘들 때 힘들다, 지쳤을 때 지쳤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웬지 본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있기에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타이어에 구멍을 뚫고, 찢고, 구기는 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느껴지는 힘들고 지쳐있는 감정과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역경, 외로움을 빗대어 표현하였다. 타이어 중앙에 '나'라는 중심을 만들고 본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 힘듦, 실망, 좌절 등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의 결합을 통해 나타내었다. 타이어가 굴러갈 때 발생하는 불순물이나 수막현상 등이 일상에서 본인을 괴롭히는 감정들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 2)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통한 공간 형성의 메타포

스테인레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젓가락, 수저, 냄비, 손잡이, 건축자재, 시계 등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작 공정에 따

라 강도, 색, 광택의 정도와 굵기가 달라지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일상에 마주하는 상황과 일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의 알곤용접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형태 속의 작은 공간들이 형성되게 하고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에 따라 본인의 힘들거나 지친감정, 고난과 역경을 복합적으로 나타내었다. 얽혀있는 형태 속에서 내면의 풀리지 않는 감정의 실타래를 표현 한 것이기도 하다.

환봉을 타이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탑 형태는 본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하였고, 용접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공간들은 하나하나 본인의 마음속 저 깊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정리 하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교차 속에 생겨난 공간은 일상에서 본인이 지냈던 생각을 이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실망해도 실망하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의 감정을 본인만의 공간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의 교차를 통해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공간은 사람은 순탄하거나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어 주변의 벤딩 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은 열심히 앞으로 전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과정에 한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휴식 없이 멈추면 안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제자리를 땀 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 생각을 통해 일상의 감정 속에 실패와 극복을 반복하는 모습을 표현 하였다.

### 3. 작품분석



【작품1】 pricelessⅢ, 800x800x23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작품1】 pricelessⅢ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800x800x2300(mm)

작품재료 : 타이어, 스테인레스

제작방법-

4개의 크기가 다른 타이어를 반으로 절단 후 너트와 볼트를 이용해 4개의 타이어를 연결 한 후 세울수 있도록 10ø 각 환봉으로 지지대를 보강하고 5ø각 환봉을 알콘용접 하였다.

작품설명-

페타이어 공장에서 쓰러지지 않게 차곡차곡 높게 쌓여 있는 형태를 보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복잡함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방치 되어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였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생각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답처럼 쌓아 올리는 형태를 통해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쌓아 올려 갔다.

답 형태를 통해 본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하고,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용접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은 공간들은 하나하나 본인의 복잡한 심정이나, 고난과 역경, 힘들고 지친 감정 등 정리되지 않고 마음속 저 깊이 방치되어 있거나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작품2】 pricelessVI, 600x300x650(mm), 타이어, 와이어, 턴볼트 2015

【작품2】 pricelessVI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600x300x650(mm)

작품재료 : 타이어, 와이어, 턴볼트

제작방법-

타이어에 구멍을 뚫어 너트와 볼트를 조인 후 와이어와 턴 볼트를 통해 잡아 당긴다. 당김 속에서 턴 볼트를 얼마만큼 조이느냐에 따라 타이어의 구김은 달라 진다.

작품설명-

타이어는 내부에 강한 철심이 박혀있다. 그로 인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고무 이지만 강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요철구간을 지날 때는 원형의 형태가 일시적으로 변한다. 요철구간 통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래 의 원형을 되찾는다. 이를 통해 생명성이 없는 물건도 힘들이나 고난과 역경을 걸으며 표출 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본인 또한 그렇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내색하기 싫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론 힘들 때는 힘들다, 지쳤을 때에는 지쳤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웬지 본인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기에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표출하려 한다.

타이어를 턴 볼트와 와이어를 통해 당겨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타이어 외부의 일그러짐은 본인의 힘들고 지친 상태를 유지한다. 본래의 원형으로 돌

아가지 않게 잡아당김으로 힘듦과 지침을 표현한다. 또 한 가지는 턴 볼트와 와이어가 타이어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연출은 건드렸을 때 ‘툭’하고 터질 것만 같은 본인의 심정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작품의 와이어는 평온해 보이지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작품3】 pricelessIV, 1100x250x75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 【작품3】 pricelessVI

#### 제작방법-

타이어에 구멍을 뚫어 5ø 환봉을 교차하여 결합한 후 튀어나온 부위에 8ø 환봉을 벤딩하여 타이어 테두리를 감싸게 알콘용접 하였다.

#### 작품설명-

타이어 본연의 가치를 다 할 때 열심히 굴러가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타이어 내부의 휠 부분은 하나의 모형을 연상 시킨다. 움직이는 사물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게 되면 하나의 정지 상태로 보이는 현상과도 같다. 휠의 모양이나, 속도에 따라 다른 모형을 띄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환봉의 교차를 통해 삼각형을 만들고 그 교차 속에 생겨난 공간을 본인이 지냈던 생각을 이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상황과 일들로 인해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실망해도 실망하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척’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진정한 속마음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작품4】 priceless V, 700x250x7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작품4】 pricelessVI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600x300x650(mm)

작품재료 : 타이어, 스테인레스

제작방법-

타이어에 구멍을 뚫어 원형 물체를 두고 환봉을 교차해 가며 결합 후 원형 물체 제거.

작품설명-

타이어는 휠이 없으면 본연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없다. 휠이 없는 타이어는 그저 고무일 뿐이다. 그만큼 타이어에 휠의 존재는 중요하다. 이런 타이어에 휠 대신 본인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사회의 일원으로 과연 본인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타이어 중앙의 한쪽에 위치한 원형은 본인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본인 중심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일들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의 교차를 통해 표현 한 것이다.

교차 속에서 서로 얽혀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순탄하거나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와 극복을 반복 속에서 현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생각 속에서 주변을 맴도는 불안한 감정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며 살아 가지만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겨 냄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작품 5】 pricelessVII, 1200x350x100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작품 5】 pricelessVI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600x300x650(mm)

작품재료 : 타이어, 스테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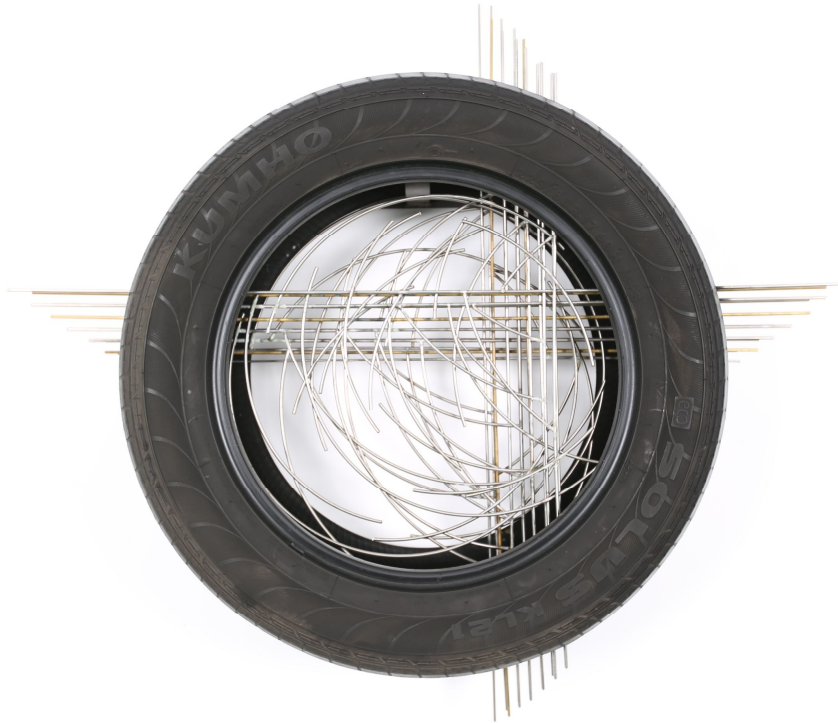
제작방법-

타이어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다른 두께의 스테인레스 환봉을 결합 후 벤딩한 환봉과 함께 타이어 주변을 멤도는 형태로 알콘 용접하였다.

작품설명-

타이어는 본연의 가치를 다할 때 많은 불순물과 주변 환경에 따라 타이어 주변 많은 작용이 생긴다. 타이어는 고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면 위를 굴러 가기 때문에 고무가 밀리며 앞으로 굴러간다 이 상황 속에서 타이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아서 홈이 파여 있던 자리는 매끈하게 변한다. 이 과정속에서 생겨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불순물을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을 통해 불규칙한 배열과 조합으로 마치 타이어가 굴러가고 있는 느낌을 표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본인과의 밀접한 관계 또한 유지된다.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불순물과 비유 하였고, 본연의 일을 다 하고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우여 곡절과 실패, 후회 등의 불순물이 생기지만 그 또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비유한 것이다.



【작품 6】 priceless II, 600x300x650(mm), 타이어, 스테인레스 2015

【작품 6】 pricelessVI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600x300x650(mm)

작품재료 : 타이어, 스테인레스

제작방법-

타이어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다른 두께의 스테인레스 환봉을 결합 후 벤딩한 환봉과 함께 타이어 주변을 뿔도는 형태로 알콘 용접하였다.

작품설명-

타이어는 한 곳에서 굴러가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져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나아간다. 작품 안쪽의 벤딩 된 스테인레스 스틸 환봉이 타이어 안쪽에서 뿔 도는 형태를 이룬다. 이것은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뿔 도는 것에 비유 하였다. 열심히 앞으로 전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과정에 한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휴식 없이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점점 제자리를 뿔 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타이어는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타이어 중앙에 환봉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벗어나지 못하고 뿔 도는 마음을 빗대어 표현해 보았다.

### Ⅲ. 결 론

예술에 있어 작가는 작품의 표현을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드러내며, 아울러 동시대에 속한 현실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작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감성과 상상력을 더하여 작품의 형태로 표현한다.

본인이 일상에서 경험한 체험 중 작가의 주관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형상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표현된 형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되는 소재와 사람의 감정이 결합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조형화 하고자 시도하여 이를 작품으로 구체화 시켰다. 본인의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느껴지는 고난과 역경을 조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인이 일상에 대한 은유를 표현하고자 한 주된 목적은 같은 일상 속에서의 가치 전환을 통해 본인의 삶과 빗대어 표현 하였다.

일상에서의 은유를 조각으로 조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본인의 내적감정을 드러내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음이 본 연구가 이루어낸 성과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고, 관념, 정서 상태가 드러나는 인간의 감정의 모습을 여러 교차 속에 만들어진 공간의 형태가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성과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독창적인 형태를 표현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감상자에 일상에서의 경험에 의해 선택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앞으로 일상에서의 감정을 묵인 하지 않고 조각으로 표현한 작품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며, 폭넓게 일상

에서의 소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진솔하고 심도 있게 표현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신민재,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미친 팝아트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2006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믿음사 1998
- 오토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이기숙 옮김, 에코리브로 2011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 2. 홈페이지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oreana.or.kr/index.asp?lang=ko>

# ABSTRACT

## **A study of the figurative representation of the everyday**

**-On the basis of my work-**

Kim, Hwan-Hi

Public Ar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to express yourself one experiences in everyday emotions that research, analysis formed the background and how representation works mainly in charge presented before a master's degree metaphorically.

Artists give normal objects spirituality and tell an audience in their own language and forms through communion of external and inner experiences while they are living.

Modern people who live in fast changing generation get sick of and bored with old things easily and live fast pressed for time. What does daily life mean to us in this generation? For most people, daily life is recognized as

repetition of meaningless affairs. However, regardless of objective or subjective thoughts, when we see our daily life in various ways again, things we have considered as normal and boring things come to us as special things and they greatly influence various psychological emotions we normally and easily feel in our daily life.

With my work, I approached a subject by modelling emotions from direct experiences or feelings in daily life and this is anyone can experience and feel it. In other words, emotions, memories and thoughts about potential nature of human beings for objects we can easily encounter in daily life have been given shape.

In this thesis, how memories and emotions in daily life are expressed in this work is analyzed based on a theoretical aspect and fundamental thoughts that consist of the work are explained by approaching emotions caused by daily life and design characteristics are suggested by reinterpreting it formatively.

In Chapter I,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cribe the research method for my work.

In Chapter II, The point in the back of their works by the theoretical production method of backgrounds and work in the study the meaning of space and production through work analysis work and work descriptions of the everyday through a description of the productions motivation to work formation in background saw.

In Chapter III, In conclusion it complements that on the basis of insufficient information, organize and present the research in this paper was to explore ways to further're the future work.